



보통의 하루

하트 리듬 희망 우수상

변 O 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의 당사자인 남편에게도 말 하지 못했던 그 날의 일들과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공감과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써내려가 봅니다.

신혼여행을 한달 여 앞둔 밤이었다.

그 날은 교대근무를 하는 남편이 야간조였기 때문에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을 할 예정이었다. 저녁 10시쯤 되었을 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다.

「잠시 기억이 끊긴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다그치는 나에게 남편은 큰 일이 아니라는 듯, 일하는 중에 생전 처음 느끼는 어지러움을 몇 번 있었는데 그 중 한번은 잠시 기억을 잃은 것 같이라며, 운전을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택시를 불러 응급실에 다녀오마 하는 것이었다.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닥달을 해보아도 결국 남편은 퇴근시간이 되어서야 나왔고, 남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기에 함께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남편의 가족력에 뇌졸중이 있던터라 우리는 관련 건강검진에 몹시 신경쓰는 편이었다. 그때 당시도 검진을 한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고,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걸까 속은 타들어갔고, 정적 속 초조함을 싣고 택시는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 할 즈음이 되어 남편의 어지러움은 한결 나아진 듯 했다. 증상을 설명 할 때, 기억을 잠시 잃었다는 남편의 말에 보인 의사선생님의 반응에 긴장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며 여느때와 다름없이 말하고 장난을 치며 날 안심시켜주는 남편의 모습에 나는 이내 함께 웃었다.

병원에서는 뇌CT를 찍어보자고 했다. 남편은 수십만원의 응급실 비용이 걱정되는 듯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며 나를 바라보았다가, 매서운 아내의 손에 끌려 순순히 CT실로





이동했다. 검사실 앞에 도착하여 남편의 차례가 되자 방사선사 선생님이 나오셨다. 검사 잘 받고 나오라 인사하며 돌아서 바로 앞 보호자 대기실의 의자에 앉으려는 찰나 였다.

“어지러우세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돌아서자 옆으로 무너지듯 쓰러지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남편을 부르며 달려가 뒤로 쓰러지려는 남편을 끌어안아 받았다. 무엇인가 말하려는 것 같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는 듯 싶더니 이내 하얗게 핏기가 사라졌다.

남편의 맥박을 확인한 방사선사 분은 응급실에 전화를 걸고 곧 CPR을 시행하셨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생애 접해본건 의학 드라마에서가 전부인 단어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곧이어 여러명의 의료진분들이 달려와 남편을 둘러쌌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남편을 부르고 있는데 맥이 잡힌다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눈을 떴다. 상황을 이해 못하겠다는 듯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을 침대에 눕혀 응급실로 이동했다. 의사선생님이 남편의 인지능력을 확인 하고, 혹시라도 쓰러졌을 때 부상이 있었을지 모르니 뇌CT를 다시 찍으러 가자고 하셨다. 아까와는 다르게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남편이 걱정되고 불안하여 가슴은 터질 것 같았으나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은 남편일 것이기에 괜찮다 남편을 다독였다.

뇌CT에는 이상소견이 없다며 다른 검사를 해보자고 의사선생님이 왔다가시자마자, 남편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더니 한번 더 기절했다. 황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응급실 선생님들이 달려오셨고 남편은 바로 스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분위기가 보다 심각해졌다.

곧이어 심전도와 그 외 상태를 측정하는 줄들이 주렁주렁 남편의 몸에 붙여졌다. 그 후에도 남편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면 치솟는 심박동수에 응급실 부스로 달려가는 상황이 서너번 반복되었다.

평소였다면 이미 퇴근하여 집에서 자고 있을 시간, 그것만으로도 피곤 할 남편은 기절의 반복과 어지러움까지 더해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남편은 다가오는 출근시간에 대해 걱정을 했다. 출근이 대수냐며 화는 났지만, 그보다 안쓰러움이 더 컸다.

내가 회사에 전화하고 오겠노라 잠시 병실을 나와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건지 얼마되지 않아, 남편의 병실로 달려들어가는 선생님들을 보고 황급히 따라 들어갔다.





긴박한 분위기 속 제세동기가 들어와 있었다. 기도삽관을 하고 제세동기가 작동할 때 튕겨 올라오는 남편의 몸과 신음섞인 괴성도 섞여 들려왔다. 그 모습에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채 두 손만을 그러쥐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나를

간호사 선생님이 의자에 앉혀주셨다. 심장내과 교수님이 바로 응급실로 내려오셨고 남편이 괴로워하니 재워두시겠다고 투약을 지시하셨다. 잠시 뒤 남편을 둘러싸던 많은 의사분들이 나가시자 잠든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잠들어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곁에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조용히 남편의 발을 잡고 그렇게 서 있었다.

중환자실로 남편이 이동하고 남편에게 심실빈맥이 왔음을 설명 듣던 때, 다시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의사선생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애꿎는 눈물의 시간 뒤, 선생님이 돌아오시더니 방금도 빈맥과 세동이 왔으며, 제세동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야 했다고, 오늘은 병원에서 조금 대기하고 계시라며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

무슨뜻일까 대기할 해야 한다는건? 부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뜻이 아니기를 빌고 있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중환자실에서 남편에게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건네주셨다. 멍하니 그 목록을 바라보다가 병원의 편의점으로 내려갔다. 완연한 아침의 해를 보며, 몇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하니 목록의 물품들을 사다가, 환자용 기저귀를 집었을 때, 눈물이 났다. 꿈도, 울고만 있을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다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중환자실에 물품을 전달한 뒤 문 앞 의자에 앉아 그저 기도했다. 나는 종교가 없으니, 이 세상에 찾을 수 있는 모든 신들을 찾아가며 그렇게 빌었다. 가족들이 하나 둘 도착하고 오후가 되었다.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병원은 환자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 환자가 현재 안정된 상태이니 집에가서 기다리셔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발을 떼지 못하는 나를 엄마와 동생이 다독이며 집으로 데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심실빈맥에 대한 정보와 남편의 상태를 기록하며 어떻게 해야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매달렸다. 의료진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남편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이 나를 덮쳐와 끊임없이 쓰고 읽는 수 밖에 없었다. 하필이면 주말이었기에 검사에 제약이 따랐고, 계속 중환자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의 빈 자리를 보면서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이 쓰러지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뜯 눈으로 밤을 새우고 떨리는 맘으로 전화를 건 나에게 남편이 깨어났다는 벅찬 소식이 들려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다.

그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아직 남편의 심실빈맥 원인은 찾지 못했다. 남편의 가슴 왼쪽엔 ICD, 삽입형 제세동기가 들어가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 선상에 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일을 겪으며, 우리는 새삼스럽게도 함께하는 오늘의 소중함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보다 더 많은 사랑과 감정을 표현하고, 무가치 한 것에 화내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조금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여전히 힘들고 불안한 날들도 있다. 예전과 똑같은 환경도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평범한 하루하루 위해 남편과 나는 함께 노력 중이다.

나는 여전히 매일 밤 잠든 남편의 곁에 누워 기도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보통의 하루가 계속되기를.

